

중국 후베이(湖北)성, 첫 인터넷병원 운영 개시

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

주요내용

- (현황) 후베이성의 첫 인터넷병원인 ‘후베이성인터넷병원(湖北省互联网医院)’이 5월 중순 운영 개시
- (원인과 분석) 인터넷병원은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보완하고 진료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인터넷병원이 설립되고 있으며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료 예약, 의사-환자 간 원격진료, 약 처방, 진료비 결제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고, 의료기관 간 원격진료도 가능
- (전망과 시사점) 중국 인터넷병원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활용한 중국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, 현재 중국의 인터넷병원이 도입·시범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 인터넷병원의 운영 현황, 정책 변동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것임.

1. 이슈 현황

■ 후베이성의 첫 인터넷병원인 ‘후베이성인터넷병원(湖北省互联网医院)’이 5월 중순 운영 개시

- ‘우한시중심병원(武汉市中心医院)’¹⁾과 알리바바가 협력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

2. 원인과 분석

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료 예약, 의사-환자 간 원격진료, 약 처방, 진료비 결제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고, 의료기관 간 원격진료도 가능

-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료 예약 및 결제,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후베이성 내 다른 병원에서도 시행되나, 원격진료와 온라인 약 처방은 본 병원이 처음임.

1) 후베이성 대표 공립병원 중 하나로 우한시 중심에 위치한 3급 대형병원임.

- 의료진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며 온라인 진료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음.
- 온라인 약 처방은 우한시중심병원에서 오프라인 진료 경험이 있거나 동급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이용 가능함.
-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방된 약을 후베이성 로컬 약품유통기업인 주저우통(九州通)의 온라인약국을 통해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음.
- 우한시 변두리에 위치한 신저우(新洲)구²⁾ 일부 병원·보건소 환자는 우한시중심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격 협진을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후베이성 전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

■ 인터넷병원은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보완하고 진료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 중국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정책과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힘입어 2015년부터 후베이성을 비롯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인터넷병원이 설립되고 있음.

- 중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, 병상 수가 각각 1.68명, 3.62개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며³⁾ 지역편차가 심함.
 -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의료기구가 부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고, 대도시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자정부터 줄을 서고 예약번호표를 암거래하는 등 환자 몰림 현상이 심함.⁴⁾
- 단기간에 전국 각지로 의료기관과 인력을 공급할 수 없어 인터넷병원의 필요성이 대두
 - 인터넷병원을 통해 환자는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고, 병원은 신속한 수속과 진료가 가능해진 한편 하급 의료기관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를 분산할 수 있음.
- 중국정부는 2009년 의료기관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2014년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이 의사-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조치
 -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을 발표하고 서비스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지방정부가 결정
- 2015년 인터넷과 경제·사회 각 분야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추진되자, 후베이성 등지는 인터넷병원과 같이 의료서비스에 인터넷을 결합하는 산업 발전에 노력⁵⁾

2) 신저우구는 우한시 13개 구(區) 중 가장 낙후한 곳 중 하나로, 의료기관이 적고 우한시 중심에서 대중교통(버스)으로 약 4시간, 택시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.

3)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, 병상 수는 2.22명, 11.66개(OECD Database 2014년 기준, 최근 연도 데이터 누락으로 2014년 데이터 사용).

4) 중국에서는 '병을 진료하기가 어렵고 비싸다(看病难看病贵)'라는 말이 유행함.


- 인터넷병원은 광둥, 저장 등 연해지역에 먼저 도입되었고 최근 내륙지역에서도 설립 활발

표 2. 중국의 주요 인터넷병원			
병원명	설립연도	설립주체	특징
광둥성 인터넷병원 (广东省网络医院)	2014	광둥성 제2인민병원, 요우더이 (友德医·모바일헬스케어기업)	- 의사-환자 간 원격진료 최초 비준 - 약국체인과 협력해,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된 약을 근처 약국체인에서 구입 가능
닝보 클라우드병원 (宁波云医院)	2015	닝보시 정부, 동루안(東軟·소프트웨어기업)	- 정부가 민관합작 방식으로 설립에 직접 참여 - 홈페이지에 등록된 닝보시 소재 여러 병원·약국 이용 가능 - 고혈압, 당뇨병, 심리상담에 한해 원격진료

자료: 『健康界』(2017. 5. 4), 『互联网医院2017年这么火 盈利模式在何方』등 언론보도종합.

3. 전망과 시사점

- 중국 인터넷병원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활용한 중국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, 현재 중국의 인터넷병원이 도입·시범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 인터넷병원의 운영 현황, 정책 변동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것임.

- 국내 일부 병원은 중국 모바일 헬스케어기업과 협력해 만성질환 분야 인터넷병원 운영을 검토하기도 함.
- 후베이성인터넷병원의 경우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,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.
- 현재 인터넷병원 관련 관리규범이 모호해 의료사고 시 지방정부가 자율적·시범적으로 인터넷병원의 서비스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중앙정부의 총괄 규정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.⁶⁾ 

참고문헌

- 湖北日报, 新华网, 健康报 등

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5) 『加快推进智慧湖北建设行动方案(2015-2017年)』.

6) 『互联网医疗或迎大变革 网上问诊“专家”将严格准入资质』.